

므낏세와 에브라임 (창 41:50-52)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 속에는 두 개의 방이 있다. 그 하나는 기억의 방이고 나머지 하나는 망각의 방이다.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기억의 방에 집어넣고 또 잊어버리고 싶은 것은 망각의 방에 집어넣는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기억하기도 하고 어떤 일들을 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말은 일반적으로 맞은 이야기이지만, 항상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경우 인간의 기억과 망각의 기능에 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려야 할 것은 잊지 못하고 오히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어버리는 일이 우리에게 종종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들이 있으며, 반대로 잊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무엇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하며 무엇을 잊어야 할 것인지를 서로 나누어 봅시다.

| 잊어야 할 것 |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
|---------|---------------|
| | |

1. 요셉은 17 세 때 노예로 팔려왔다가 우여곡절 끝에 30 세의 나이에 이집트의 국무총리에 올라 애굽의 명문가 규수를 아내로 맞아 두 아들을 낳고 첫째 아들은 ‘므낏세’,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첫째와 둘째 아들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며, 두 아들의 이름을 애굽식으로 짓지 않고 히브리식으로 지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아들(므낏세): _____ (창 41:51)

둘째 아들(에브라임): _____ (창 41:52)

히브리식으로 지은 이유:

2. 요셉은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은 것은 오히려 그가 오랜 세월 동안 모든 아픔과 상처들을 가슴에 담아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요셉의 입장이 되어서 그가 당한 아픔과 상처가 무엇이었는데 이를 이야기해 봅시다.

3.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어 자기를 팔아먹고, 누명을 씌우고, 자기의 약속을 새까맣게 잊어버린 자들을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복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복수 대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4. 요셉은 과거에 힘들었던 모든 일을 옛 일로 생각하고 잊어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며, 두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5. 역사적으로 보면 므낫세 지파보다는 에브라임 지파에서 영적인 지도자가 더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어떤 영적인 리더가 배출되었는지를 열거해 보고, 그 이유를 말해봅시다.

므낫세 지파: _____

에브라임 지파: _____

이유: _____

[적용] 오늘 배운 내용을 생활 속에 적용하여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 주님, 잊어버려야 할 고난과 상처는 두고 두고 간직하고, 잊지말아야 할 은혜는 깜박깜박 자주 잊어버리는 삶이 아닌 모든 고난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잊지 않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 주님, 옛 일을 잊어버리고 새 출발을 한다는 [므낫세의 신앙고백]을 넘어서서, 주어진 환경속에서 번성케 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에브라임 신앙고백]으로 살게 하옵소서.
- 주님, 올 한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4/14 W 사역과 특별히 에셀나무 프로젝트와 해외선교 [캄보디아 예수마을프로젝트, 아프리카 우물프로젝트] 사역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감당케 하옵소서.